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39

“우리도 함께 뛰다”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39일 앞으로 다가왔다. 3·1정신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다지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달리기동호회·기관 단체·시민들의 잇단 참가신청으로 벌써부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올 대회에 참가하는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무등산지킴이들
3·1절 만세삼창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무등산 옛길을 시민들에게 더욱 알리고 직원들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달리겠습니다” ‘광주의 진산(鎭山)’ 무등산(1천187m)을 지키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소장 임희진) 직원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이번 대회 참가 결의를 다졌다. 매일 산길을 오르내리면서 걷기에 익숙한 이들이 산을 벗어나 포장길을 달리겠다는데는 또다른 뜻이 있다. 바로 무등산의 옛 정취를 더욱 만끽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있는 스토리텔링 작업과 뽕뽕다리 건설 등 4개의 옛길 복원 후속사업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무등산의 전설과 설화를 발굴해 옛길 11.2km 구간 곳곳에 삽화와 이야기를 실은 안내판을 세워 탐방객들이 지루하지 않고 유익한 산행이 되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동문지터 등 도로 횡단구간에 나무로 만든 보행육교 ‘하늘다리’(길이 20m·폭 2m)를 만들어 등산객들의 안전사

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셋째, 제4수원지(정암교) 상류쪽에 길이 50m의 ‘뽕뽕다리’를 설치해 탐방객들이 옛 다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옛길 1구간(수지사 입구~원효사)에 ‘주막터’를 세워 잠시 쉬어가는 쉼터도 구상하고 있다.

무등산 옛길 명품길로 조성

이같은 직원들의 노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강한 산’을 가꾸어 무등산이 시민들의 ‘삶의 충전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이들의 또 하나의 목표는 5km 완주이다. 평소 산행으로 다져놓은 건강에 ‘이상 없음’을 과시하고자 하는 자신감도 담겨 있다. 사실 직원을 대부분은 업무상 하루 평균 산길 15km 정도를 걷기 때문에 특별한 운동시간이 필요치 않다. 대회 참가자 30명 중 한 명이 10km에 도전한다. 바로 강장선(45)씨. 광주시청마라톤동호회에서 2년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이 21일 무등산 사무실 앞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무등산 옛길을 명품길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광주시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족혼 부르며 30명 5km 도전

간 활동했던 그는 2년전 이 대회에 참가해 10km를 끝까지 달렸던 사무소 내 마라톤베테랑이다. 그는 “예전에 달리던 경험을 살려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게 목표이다”고 출전포부를 밝혔다. 여직원 이지

연(32)씨는 “매일 비상사태에 대비한 긴장 속에서 생활하다 모처럼 직원들간에 여유있는 시간을 갖게 돼 기쁘다”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직원들간에 더욱 화합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참가소감을 말했다. 특유의 리더십으로 무등산지킴이들을 이끌어 온 임희진 소장은 “지난해 무등산 옛길 복원과 장불재

대피소 신설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났다. 올해도 무등산 옛길을 명품길로 관리해 무등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대회에서 전직원이 끝까지 달려 무등산 가꾸기 의지를 반드시 보여 주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동계올림픽 첫 금을 향해

독과 이규혁, 이강석, 문준, 모태범, 이상화 등을 비롯한 대표선수 16명은 2차 미디어데이 행사에 나와 “반드시 첫 금메달을 따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사상 첫 금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선수들이 20일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김관규 감독과 이규혁, 이강석, 문준, 모태범, 이상화 등을 비롯한 대표선수 16명은 2차 미디어데이 행사에 나와 “반드시 첫 금메달을 따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100kg 거포들의 ‘아름다운 합방’



최희섭, 전훈지서 독방반납하고 나지완과 동거
서로 독려하며 올해도 흥런생산... V11 의기투합

KIA 선수들이 한 이불 아래 V11이라는 같은 꿈을 꾸고 있다. 각별한 사이로 소문난 최희섭과 나지완은 이번 미야자키 전지훈련에서도 한 방을 쓴다. 타자 서열순으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고참 최희섭은 지난해에도 독방 대신 나지완과 한 방을 사용했다. 물의 동거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역시 이들의 몸집 때문이다. 최희섭은 애칭 ‘빅조이’처럼 팀 내 최장신(196cm) 선수. 몸무게도 100kg가 훨씬 넘는다. ‘과외히터’ 나지완도 182cm, 100kg의 몸집을 보유하고 있다. 두 거구를 위해 가장 넓은 방을 배정해줬지만 비즈니스 호텔이 주는 이르는 일본답게 방이 무척이나 좁다. 짐들까지 더해 두 거구가 움직일 공간이 여의치 않을 정도다. 하지만 사석에서 형·동생으로 통하는 두 선수는 올

해도 한 방을 고집했다. 서로를 독려하며 V10을 위해 힘을 합작했던 두 선수는 올해도 V11을 목표로 의기투합 했다. 프로 11년차에 접어드는 박기남도 독방을 사용할 수 있는 고참급선수. 하지만 박기남은 2년차 후배 안치훈과 한 이불을 덮고 있다. KIA 유니폼을 입고 처음 참가한 전지훈련에서 외로움도 달래고 야구 얘기도 나눌 겸해서 포항에서 함께 훈련을 했던 안치훈과 룸메이트를 이뤘다. 이미 두 선수는 남해에서 룸메이트로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다. 안치훈의 원정룸메이트는 이현근이지만 남해 캠프 때 이현근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한방을 썼었다. 이번 전지훈련에서 새신랑 이현근이 독방을 쓰자 박기남이 안치훈에게 손을 내밀었다. 두 선수의 방은 ‘연락사무소’로 통한다. 박기남과 안치훈이 전지훈련에 대비해 인터넷 전화를 준비해

오면서 최희섭이 옆방을 찾아 전화 다이얼을 돌리기도 한다. 고참 선수들에게 독방이 배정되는 일본과 달리 숙소가 넓은 광은 전원 룸메이트와 생활한다. 이곳에도 애뜻한 룸메이트가 있다. 입단동기 윤석민과 광정철은 한 방을 차지했다. 평소에도 절친한 친구로 소문이 자자한 두 선수는 ‘알콩달콩’ 속소도 함께 쓴다. 같은 처지(?)의 선수들끼리 한 조를 형성하기도 했다. 언더 투수 유동훈은 역시 언더 후배 전태현과 조를 이뤘고, 문현정·정운은은 좌완 콤비를 구성했다. 군에서 막 제대한 예비역 김희걸·이상화도 한 조다. 동문커플도 있다. 진흥고 출신의 이대진은 까마득한 신인 임기준과 함께 한다. 15년차 외야수 채종범은 마산고 동문인 2년차 투수 박상혁과 한방을 쓴다. 다른 포지션에 나이차도 상당하지만 두 선수는 입단전부터 안면이 있다. 채종범은 2008년 무등기전국고교야구대회를 위해 마산고 후배들이 광주를 찾자 경기장을 찾아 응원을 보냈었다. 당시 박상혁은 투타에서 맹활약하며 팀의 준우승을 이끌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밴쿠버올림픽 금4”

美 경제 전문지 보도

한국이 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제21회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따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0일(한국시간) 인터넷 판에 미국 콜로라도대 대니얼 존슨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존슨 교수는 국가별 1인당 소득, 인구, 정치구조, 기후, 대회 개최지와 인접도 등을 종합해 나라별 총 메달 수와 금메달 수를 예상했다. 종목별 우승자를 따로 밝히지 않은 존슨 교수는 “경쟁력이 바탕을 둔 예상치다. 선수 개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예상치에 변수로 넣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예상에 따르면 한국은 금메달 4개를 포함해 모두 11개의 메달을 따낼 것으로 전망됐다. 4개 종목에 45명의 선수를 파견하기로 한 한국은 금메달 6개 이상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금메달 수로는 한국이 가장 많고 총 메달 수로는 중국(금메달 2개)이 12개로 한국보다 1개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양용은 ‘MVP’·신지애 ‘최우수프로 선수’

대한골프협회 선정

대한골프협회는 2009 최우수선수(MVP)에 양용은(38)을 선정했다. 골프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2010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양용은을 MVP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한 신지애(22·미래에셋)를 최우수프로선수로 발표했다. 양용은은 지난 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을 포함해 2승을 올렸고 신지애는 LPGA 투어 신인왕과 삼금왕 등을 차지했다. 남자국가대표 한창원(19)은 최우수아마추어 선수로 뽑혔다. 한창원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아마추어팀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했고 아시아 아마추어챔피언십에서도 우승



<양용은>

<신지애>

해 올해 PGA 투어 마스터스대회 출전권을 따냈다. 골프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 37억2천517만8천원을 확정했으며 김동욱 협회 전무이사를 상근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 /연합뉴스